

# 승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

인생은 지켜주고 품어주는 은혜로운 품이 있을 때라야 그 삶에 존엄과 영광이 깃들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에 안겨 한 생을 빛나게 살아온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영광으로 빛을 뿌리는 그들의 사후가 이를 잘 말하여준다.

공화국의 지명된 정치군사활동가였던 현철해 전 조선인민군 원수의 한생도 그러했다.

애석한 마음을 누를길 없으며 몸소 그의 령구를 메고 발인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가까스로 슬픔을 누르시며 고인의 유해에 한층준중 정히 흠을 엮으시는 그의 모습에서, 쓰리고 아프신 마음 더는 달랠길 없으신듯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묘비앞에 이속도록 서계시는 그 영상에서 세인은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위대한 인간,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 안긴 사람은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것을.

한번 정을 주고 믿음을 준 사람은 끝까지 믿고 아끼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그들과 생사를 같이하시는분은 공화국인민들이 위대한 아버지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이다.

이 나라의 새벽문을 남먼저 여시고 나서신 걸음으로 언제나 한 번 실재없이 거친 눈비도 폭양도

자신의 옷자락으로 막아 온 나라 인민에게 행복만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많은 인민사랑의 전설, 얼마나 뜨거운 동지애의 세계가 경애하는 원수님 걸고걸으신 이 위대한 원수의 길에 새겨져있던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전사로 한생을 빛내인 항일혁명투사를 잃은 비통함을 누를길 없으시며 두손으로 유해에 흠을 엮으시던 잊지 못할 그날의 영결식과 뜻밖에 세상을 떠난 당중앙위원회 한 책임일꾼의 령구를 찾으시어 참고참았던 오열을 터치시며 오래도록 그의 시신에 손을 얹고계시던 가슴뜨거운 화촉, 또 오늘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킨 현철해 전 조선인민군 원수와 영결식...

결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뜨거운 동지애의 세계에는 항일의 로투사나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만이 있는것이 아니었다.

평범한 군인도 농장원도 광부도 일군도 있었다.

묘비에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 야지, 이 동무들의 묘주는 내가 되겠소, 묘비에 나의 이름을 써넣으시오, 묘주의 이름까지 써넣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같소라고 말씀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묘주가 되어서는 그 묘에는 바로 조국보위의 길에서 뜻하지 않게 희생된 평범한 40명의 해군용사들이 고이 잠들고있

다. 그리고 경애하는 그이께서 앞으로 일을 많이 할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빨리 간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사람도 물고기대롱을 안아오기 위하여 애쓰던 평범한 일군이었고 훌륭한 인간이라고, 모두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하시며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사람도, 또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신 사람들도 평범한 광부이고 농장원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생활의 걸음을 잘못 뻗으셨다 하여 시대의 기슭으로 밀려날만 하였던 사람들도 한몸에 안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었다.

이렇듯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을 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은 가장 값높고 빛나는 삶을 누리고있다.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의 령사는 동지애로 시작되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전진하여온 위대한 동지애의 령사, 불같은 인민사랑의 령사이다.

바로 이 동지애의 힘으로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상초유의 격난을 뚫고 헤치며 조국해방의 령사, 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고 새 조국건설도 준엄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도 사회주의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해올수 있었다.

《너는 김력, 나는 성주》, 《너는 허담, 충실한 담의 전사

나는 정일.》 령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 친필은 조선혁명이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왔다는것을 오늘도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동지애의 령사, 인민사랑의 령사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은 한번 정을 주고 믿음을 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끝까지 아끼고 믿어주며 내세워주고 보살펴준다고, 그래서 그에게는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혁명동지, 전우들이 많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사랑,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땅에 인민사랑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우시고 동지애의 위대한 새 령사를 써나가 고계신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이 땅에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령사, 혁명적동지애의 령사가 도도히 흐르고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은 끝세워인의 진함없는 인민사랑, 끝없는 동지애에 의해 빛나게 완성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하늘같은 길이 권리가 됩니다

저는 30여년전 공화국으로 의거 입북하여 재북평화통일축전회의 회 회원으로 있는 정구진(77살)입니다.

국가비상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된것과 관련하여 다들 집에서 머물고있던 나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몸상태가 좋지 않아 나는 그만에야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이어 가족들도 없게 되고 보살펴준다고, 그래서 그에게는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혁명동지, 전우들이 많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런데 TV를 보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국회의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부족, 의지박약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이 있고 장기화된 비상방역투쟁과정에서 배양되고 다져진 애 사람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때문에 부닥치는 돌발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시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순전히 신심을 가지고 치료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밤 10시에 상좌별을 단 조선인민군 군의와 약국의 책임자가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와서 여러가지 귀한 약과 후방물자들을 주고 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다음날 밤에도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총비서동지께서 사회적으로 공포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잘 보강해줄때 대하여 말씀하시었다고 하면서 이 약은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약이니 이 약을 받으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바랍니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치솟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데 나와 우리 가족이 뭐라고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앞에서 저와 우리 온 가족은 너무도 감격하여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해서 분분초초 헌신으로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은 격정적으로 설레었습니다. 창가에서 불같은 거리를 내

다보는 나의 눈가에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 당과 국가의 사랑과 배려를 받고 또 받아온 지난날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두 제도에서 살아본 체험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되는게 정말 많았습니다.

이곳 북에는 친척이란 없고 제 인생도 이제의 고목인데 이렇게 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병치료까지 해주시니 그 하늘같은 은덕을 눈에 흉이 들어간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고 싶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강화발전시켜주시었으며 오늘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더욱 찬란히 빛내주시는 사회주의 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세상에서 으뜸중의 으뜸이라고.

말로 백마디, 천마디 한들 뭐하겠습니까.

저는 자식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오늘의 은혜를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일을 잘해 꼭 보답해야 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당부할라고 했습니다.

우리 8천만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고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원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통일외교의 광장에 높이 모실것날까지 로망일장하여 그이의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조국통일상수상자, 교수, 박사 정구진



## 시초

# 인민은 원수님만 믿고 삽니다

## 사랑의 끝은 어디입니까

리창식

못산다고 그 품을 떠나신 순간도 못산다고 마음속진정 터쳐 목메여 불러온 우리 인민

가슴에 뿜는 오늘의 이 격정 무슨 말로 대신해야 합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나에게 온 나라 집집에 퍼져처럼 흘러든 뜨거운 정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이여

사랑하는 인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두고 당회를 소집하시기는 그 몇번 자신의 안락까운 마음 터놓으시며 인민의 생명과 생활 미래를 끝까지 지켜내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던 그 밤 그 새벽은 정녕 몇시였느냐

한몸의 위험 아랑곳 없으시고 깊은 밤 약국들을 찾아주시고 가정에서 손수 준비한 삼비약품까지

어려운 세대에 보내달라시며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신 원수님

그 사랑 안고 방역전선에 파견된 인민군 군의들의 약품을 실은 차들이 온 나라 거리를 누빌 때 인민은 벌써 방역전선의 승리를 확신했나니

누가 말했던가 자식에게 어머니는 하늘이라고 그런 어머니의 사랑도 끝이 있다지만 그런 원수님 천만고생과 바꾸어 온 나라 인민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끝은 어디입니까

어려우수록 고난과 시련이 클수록 더 가까이 더 뜨겁게 안겨지는 아, 우리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 그 사랑의 끝은 정녕 어디입니까 눈물로 아뢰이는 인민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모든것을 이긴다 했거늘 이 나라의 천만자식 품으신 원수님께서

## 아버이 오신 길

김태룡

아버이 오신 길 누군들 상상조차 했으랴 생각만 해도 졸지에 가슴 졸아들고 마음 설책해지는 곳에 원수님 오실줄 전염병위험이 도사린 약국을 찾아 아, 우리의 아버지 밤길 달려 오실 줄은

오시면 오시면 안되건만 인민들 생각에 아픔 덜길 없으셨던 그이

정녕 오시지 않으면 안될 길이었던가 인민이여, 한분밖에 안계시는 아버지 우리 어찌나 이런 곳에 모시었던 말인가

꿈결에도 뵈고싶던 원수님 그이를 모시는 그지없는 행복이건만 심장이 열어지고 가슴치는 충격에 기쁨보다 근심이 라들던 그 한초한초가 야속했구나 왜 그러도 더디게만 흘러 갔던지

마음 같아선 불행을 겪는 인민들 한사람 한사람 집집을 다 찾고싶으신 그이 어렵고 힘겨운 자식들 보듬어 안아

인민은 벌써 보았다 방역전쟁 그 첫날에 승리, 방역대승의 그날을 보았다!

결과 정을 주며 운명을 함께 하고 싶으신 그 간절함이 못견디게 사무치신 그이

그 간절함 아무리 사무치다 하신들 여기는 안된다고 들어서시면 안된다고 어찌 두팔벌려 막아드리지 못했느냐 가까이 다가서시는 그이와 멀어지려 한걸음 두걸음 뒤로 물러서야만 했던 것이 이 나라 인민의 도리의 전부였느냐

사랑으로 한몸 불태우시는 아버지 인민위해 희생을 각오하신 그이 아니 교시야 그 누가 싯둑 나설수 있으랴 원수님 오신 그 밤길이 있어 병마도 앓을수 없는 우리 인민의 웃음넘친 아침이 밝아 왔거니

잊지 않으리라 그날의 밤길 아, 원수님 약국을 찾아오신 그 길은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려 오신 길 우리모두의 가슴에 껴집이 없을 생명의 불을 안고 오신 사랑의 길이였어라

한밤에도 새벽에도 그칠줄 몰랐던 정을 담아 울리던 문두드리는 소리 이 나라 어느 가정에서나 아픔은 덜고 정을 더해주는 식물이 늘고 형제가 늘어나지 않았더냐

피라도 아깝없이 부어줄 인정 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칠 이 미덕엔 너와 나가 없었고 남이 따로 없었거니 인간에 대한 중오와 경멸로 짙은 싸늘한 그런 땅에서야 꿈조차 꾸랴

병마에 쓰러진 쓸쓸한 운명들이 이 행성 어디선가 외로이 숨져갈 때 고티를 함께 나누는 사랑이 넘치는 내 나라

구원을 바래도 잡아줄 손길 없는 치량한 인생들 막돌처럼 버림받을 때 한식술, 친형제로 정을 나누는 내 나라

어려우수록 힘겨울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후더운 미덕의 세계 인민을 위해 마음고생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루빨리 병을 가서 그 근심 덜어드리자고 자기를 바쳐 서로 위해주는 뜨거운 마음들이여

우리는 무엇으로 강한가 원수님 사랑으로 덕과 정이 넘치는 사회주의대가정 그 불된 힘으로 강하다 아, 온 나라에 차넘치는 그 덕과 정으로 우리는 영원히 강대하리라

## 원수님만 믿고 삽니다!

김태룡

슬하의 자식들 아프고 힘겨워할 때 눈물도 많은 어머니처럼 가슴래워 제일 가까이 있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아버지는 어려운 나날에 이 나라 천만자식 제일먼저 품어주셨 습니다

손수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 자신께서 쓰셔야 할 그 약품마저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원수님 하늘같은 이 나라 인민을 위해 가정도 건강도 다 잊으셨습니더

두손으로야 어이 받아들수 있겠는가고 가슴 헤쳐 심장에 끼어고싶다고 황남이 터치던 격동의 눈물은 나리가 마음속에 그 약지함 부여 안고 끝없이 목메여 울었습니다

그이엔 자신의 가정 따로 없었습니다 이 나라 인민이 다 그이의 살붙이였고 이 땅의 모든 가정엔

돌보시는 정깊은 아들딸들 있어 그이는 이 나라 천만가정의 아버지이시거저니

뜨거운 열과 사랑만을 주신것입니까 끝까지 인민의 생을 품어 지켜주리라 아버지의 불같은 교백이 어린것입니다 시련도 난관도 언제나 인민과 함께 하실 강렬한 진정을 다 터놓으셨습니더

은인중의 은인은 생을 구해준 은인 이거늘 최악의 국난 최악의 동란속에서 품만 같이 받아안은 원수님 은정 그 사랑이 인민을 살려낸 명약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역세인 힘입니다

인민의 생명 그처럼 소중하시여 은정어린 불사약 보내주신 아, 고마우신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그 품을 떠나 인민은 못삽니다 인민은 원수님만 길이 믿고삽니다

## 인민은 보았다

리철준

누군들 당황하지 않을수 있었으랴 공포와 불안 눈물과 고통속에 세계를 몰아넣은 악성비루스 엄중한 비상방역상황이 우리 사는 이 땅에 드리웠을 때

시시각각 분분초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 우리의 미래가 위협당하던 그때 울려 퍼졌어라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응성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제로! 비상방역전의 명안들 사랑의 조치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원수님의 모습 비움은 순간 어머니 있으면 마음을 놓는 아기처럼

인민의 가슴에 자리잡은 배심든든 함이여

우리에게 원수님 계신다!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오, 인민사수로 불리는 그이의 뜻 인민사랑으로 높된 그이의 숨결은 천만인민 가슴을 울린 신심이었고 억척같이 다져준 불사신의 의지였거니

두렵지 않았어라 아버지의 불같은 사랑이 있어 인민을 지켜내시어 아버지의 그 헌신 있어 이 땅을 불행에 잠글수 없기에 이 땅의 행복을 앗을수 없기에

## 우리는 무엇으로 강한가

김영일

병마와의 싸움은 엄혹한 전쟁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모자라고 부족한것은 많건만 무엇이 있어 우리는 오늘의 시련 웃으며 맞받아 뚫고 헤치는것인가

너적지 않은 식량을 성품 덜어내면서도 웃음 머금던 녀인들에게 물어보라 차례진 약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주려버

방기를 끝내 사양하던 고마운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라 그 진정 피를 나눈 혈육이어서였던가를 무엇이 남아돌아 나눈 정이었던가를

어제는 열집의 성의가 우리 집에 흘러 들고

오늘은 웃집의 정이 아래집을 울리는 그런 동네 그런 마을 없는 곳 어디 있고

